



의정부주보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유대철 베드로

(1826-1839)



유진길(劉進吉)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난 유대철은 어려서 입교한 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다. 천주교를 반대하는 어머니와 누나가 그를 괴롭혔으나, 그때마다 어머니와 누나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유대철은 1839년 기해박해로 많은 교우가 체포되어 순교하는 것을 보고 자수하였다. 그는 포도청에서 13세의 어린 나이로는 견지기 힘든 형벌과 고문을 받았다. 허벅지 살을 뜯어내며 “이래도 천주교를 믿겠느냐?” 하며 으름장을 놓는 형리에게 “믿고 말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하느님을 버릴 줄 아세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화가 난 형리가 시뻘겍게 단 숯덩이를 입에 넣으려 하니, “자요.” 하고 입을 크게 벌려 형리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열네 차례의 신문을 받고 100여 대의 매와 40여 대의 치도곤을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언제나 평화롭고 기쁜 표정을 지었다. 형리들은 유대철을 배교 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그해 10월 31일 남모르게 목을 졸라 죽였다. 순교 당시 13세였던 그는 103위 성인 중 가장 어린 순교자다.

성화_윤여환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3

대림 제4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이사 45,8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 2사무 7,1-5.8ㄷ-12.14ㄱ.16

화답송 시편 89(88),2-3.4-5.27과 29(◎2ㄱ 참조)

-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 하였노라.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 ◎

○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

제2독서 로마 16,25-27

복음 환호송 루카 1,38

-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음 루카 1,26-38

영성체송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향백나무



레바논 국기



향백나무

성경에서 나무는 왕국 또는 왕조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돌아나고 (...) 새싹이 움트리라.”(이사 11,1)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햇순”과 “새싹”은 “이사이의 그루터기”인 다윗 왕실에서 나올 미래의 임금을 상징합니다. 특히 향백나무(체드루스)는 왕국과 왕조의 상징으로 자주 쓰였는데요, 원산지는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한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하얗다’라는 뜻으로 눈 덮인 모습을 반영한 지명입니다. 향백나무는 이런 추운 지방에서 자라므로 곧고 질겨 예부터 훌륭한 건축재였습니다. 현재 생존하는 나무가 천 년 이상 되었다고 하니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이사야가 “레바논의 영광”(이사 35,2)이라고 칭찬 이 나무는 목재로도 좋지만, 진과 기름엔 독특한 향이 있어 미라 방부제나 향수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숲은 나무가 부족한 주변 나라에게 매우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천오백 년 동안이나 레바논의 침엽수를 가져다 배의 건조, 신전과 성문 등의 건축에 썼고, 기원전 12세기부터는 아시리아도 목재를 얻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기원전 701년 유다 왕국을 공격한 아시리아의 산헤립 임금이 레바논 산지를 황폐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때 산헤립은 레바논의 나무들을 베어 산 정상까지 나아갔다고 떠벌립니다(2열왕 19,23).

레바논 숲의 소유주가 티로일 때, 티로와 돈독한 관계에 있던 다윗과 솔로몬은 향백나무로 궁전을 지었고, 솔로몬은 성전도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2사무 5,11; 1열왕 5,19-24;

7,2-3). 궁전과 성전의 외벽은 돌로 만들지만 내벽과 천장은 향백나무를 써서 단단하고 윤이 나게 꾸몄던 것입니다(6,15). 그 이후부터 향백나무는 다윗 왕실의 상징이 됩니다. 예언자들은 종종 다윗 왕실을 향백나무에 견주며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예레 22,23; 예제 17,3.12 등). 그렇다고 향백나무가 긍정적인 의미만 지녔던 건 아닙니다. 이사 2,12-17에는 오만의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향백나무와 참나무 위로 주님의 날이 닥치면 세상의 교만이 심판 받으리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왕국과 왕조를 상징하는 나무 모티프는 신약성경에 까지 이어져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영됩니다. 나무의 종류는 달라졌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나라를 ‘겨자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마태 13,31-32 등). 다시 말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자라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향백나무와 달리, 예수님의 나무는 풀처럼 연약하지만 옆으로 옆으로 자라며 온들을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낮은 자들까지 감싸 안으신 그분처럼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당신 모습처럼 풀보다 조금 더 클 뿐인 겨자에게서 하늘나라가 드러나리라는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고대근동에서 많이 사랑받은 향백나무 숲은 안타깝게도 오랜 별채로 인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천천히 자라는 나무라 복구가 쉽지 않지만, 회복을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바논 국기에도 들어가 있는 향백나무는 과거 그곳의 풍요롭고 찬란했던 모습을 떠올려줍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暗雲)들’ ⑮
- 매체를 통해 소통한다는 환상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과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회칙 「모든 형제들」은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의 증진을 가로막는 오늘날의 추세들 가운데 ‘소통의 환상’을 가장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42-50항). 소통(communication)의 수단인 매체, 특히 대중매체의 급속한 양적·질적 변화와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은 불과 수십 년 사이에 나타난 ‘새로운 사태’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소통에 대한 ‘환상’과 ‘몰염치한 공격성’(44-46항) 그리고 ‘지혜를 담지 않은 정보’(47-50항)는 우리 삶 곳곳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기술(technology)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냉정하게 성찰하는 것은 그 악영향의 심각함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기술은 결코 가치(價値) 중립적이지 않으며 윤리적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술 출현의 배경인 ‘사회’가 언제나 특정한 시대정신을 쫓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핵기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핵기술은 단지 기술로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선용(善用)과 악용(惡用)은 온전히 사람과 사회의 결정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핵기술과 그 실현에는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핵기술의 ‘평화로운 이용’을 내세운 핵발전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고에서 끔찍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무수한 핵무기 실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핵무기 사용은 핵기술의 비윤리성을 명백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술 사용은 소비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관념과 힘의 우위나 균형이 평화

를 보장한다는 관념이 득세하는 시대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풍요로움과 발전 뒤에선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양산되었고, 창조 질서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괴되었습니다. 사회교리가 기술 지배 패러다임(technocratic paradigm)을 단호하게 배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형국(세계)이니 말입니다.

소통의 매체, 특히 대중매체는 주로 정보화 시대의 이전(legacy, old media)과 이후(new media)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것의 발전과 전이(轉移)는 인쇄·통신·컴퓨터 기술의 혁신에 기인합니다. 여기서 사회교리는 대중매체의 선용이 가져다줄 이로움뿐만 아니라 그 악용에 따른 중대한 위험도 분명하게 경계합니다. 시민 대중은 자기가 속한 사회와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관하여 올바르게 알아야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권리와 정보의 윤리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중매체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들”에 의해 조종되거나 “통치 활동과 금융·정보 기관들”과 유착하고 또는 “돈벌이가 되는 사업”으로 전략해버리면, ‘다수의 지배’(민주, democracy)는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그로 인해 책임 있는 참여가 가로막히기 때문입니다(「간추린 사회교리」 414-416항 참조). 🌐



선물처럼 찾아온 우리 성당

김성훈 요한보스코 | 목동동 성당

첫째가 7살 될 무렵인 약 5년 전, 우리 부부는 이사를 고민했다. 좀 더 넓고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었다. 하지만 당시 살던 동네의 집값은 우리 부부가 감당하기에 무리였고 내가 하던 사업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30년 이상 살아온 서울을 뒤로한 채 경기도 파주 운정에 새로운 터전을 잡게 되었다. 고층 건물과 차로 가득하던 서울에 비해 운정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한적했다. 우리 아이들이 한 살 한 살 커나가기에 이만큼 적합한 동네가 없다는 만족감에 행복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30년 이상을 서울에서만 생활했던 우리 부부에게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는 낯설고 어색한 동네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이 컸기에 그저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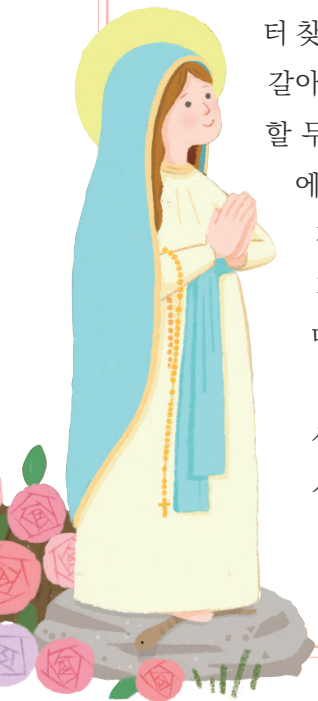
그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도 미사는 빠지지 않고 드렸기에 이사 와서 가까운 성당부터 찾았다. 집 근처에 세 개 성당이 있어서 번갈아 가며 미사를 드렸다. 새로운 삶에 적응할 무렵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건너편에 성당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까운 곳에 성당이 생기니 편하겠네.’라고 가볍게 생각할 뿐 이 성당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당시에는 몰랐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목동동 성당은 신부님과 봉사자의 노력 덕분에 신자 수

가 급격히 늘었고 어린이부 등록 인원만 200명 이상, 청소년부 40명 이상의 젊고 활기 넘치는 성당이 되어갔다. 토요일 3시에 있는 어린이 미사는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과 에너지로 가득하다. 아이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교사, 자모회, 아빠회 등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하며 신앙생활의 새로운 즐거움을 얻고 있다. 지난여름에는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주일학교 학부모 등 약 160여 명이 함께하는 연합 여름캠프도 다녀왔다.

목동동 성당을 다닌 지 1년 조금 넘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다. 낯설고 어색한 타지 생활을 하는 이에게 친구, 이웃, 형제자매 같은 영적 가족을 주셨고,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알려주면서 떨어져 있던 신앙의 끈을 다시 잡게 해주셨다.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나 자신을 잊어가고,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부모의 삶을 맹목적으로 쫓던 우리는 삶의 의미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주님의 더 큰 뜻이 무엇이다 감히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기에 우린 그저 주님의 더 큰 뜻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 메마른 삶에 선물과도 같은 목동동 성당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





교구장 동정

24(주일)	성탄 밤 미사 - 주교좌 의정부 성당
25(월)	성탄 낮 미사 - 애덕의 집
26(화)	교구청회의 - 교구청 회의실
29(금)	교구청 종무미사 - 주교좌 사적지 성당

이번 주 성경 읽기

12/24(주일)~30(토) : 루카 1,67-2,7

이 구절을 한 주간 반복해서 읽고 쓰고 묵상합니다. 12/30(토) 한 달간 읽은 내용에 대한 해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교구 소식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발급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ometax.go.kr)

필요 서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당 사무실에 비치, 신규 1회 제출)

발급 시기 2024년 1월 15일경 발급 예정

※ 동의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미제출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서는 본당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

※ 동의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한 분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제출 동의서 효력 유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제출자는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1회 제출)

※ 교무금 책정자 변경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료가 모두 국세청으로 이관되기에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12/29(금)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에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명 강창일 스테파노, 이기연 요한, 윤정숙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교구 성소후원회 신년 하례 미사

일시 1/5(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두루미 생명 평화 여행 [철원-연천-파주]

일시 1/10(수)~11(목) [1박 2일]

장소 민족화해센터

대상 누구나 (선착순 40명)

회비 9만원 (청소년 7만원)

접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2024 미사 안내

“Sleeping with Bread” and Mass (빵 미사) 일시 1/6(토)부터 매주(토) 18시

Family Mass with crying baby (가족 미사) 일시 1/7(주일)부터 매(주일) 11시

문의 031-901-1460, 850-1456 청소년사목국

미사 안내 ▶



[갤러리평화] 동계 휴관 안내

1, 2월 두 달간 동계 휴관합니다. (휴관기간 중 오픈클래스 예정)

문의 031-877-9153 갤러리 평화

 **미사 · 피정 ▶▶**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자 월례미사

일시: 12/27(수) 14시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대상: 교정사목에 관심 있는 모든 신자
문의: 031-856-0213 (전화, 문자 모두 가능)

3.4지구 성령기도회 영성 피정

일시: 12/29(금) 13시~16:30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대성전
강의: 신기배 신부(3지구장) / 문의: 010-3790-0496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안소근 수녀와 함께 하는 구약여행 이사야서II:
12/27(수)~29(금)
성경완독: 1/5(금)~13(토), 2/16(금)~24(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사: 12/26(화) 양창우 신부, 1/2(화) 김현우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한마음 청소년 힐링 음악 피정

1차: 1/30(화)~31(수), 2차: 2/20(화)~21(수)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 피정비: 10만원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의정부부교구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12/29(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강사: 신상옥 안드레아
문의: 010-2127-0032

송구영신 철야 기도회

일시: 12/31(주일) 21:30~새해 04시 (미사, 안수)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1/5(금)~8(월), 1/26(금)~29(월), 2/16(금)~19(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클라라

2024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날짜: 1/19(금)~21(주일) / 살레시오회 관구관
대상: 고1~35세 미만 남성 / 접수: 12/31(수)까지
문의: 010-6221-3520 살레시오회

 **교육 · 모집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영선반 직원 채용

부서: 고객지원팀 영선반(실내외 작업)
근무: 주 5일 근무 / 주 40시간 (08:30~17:30)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조

파주 엑소더스 '에투알'(etoile, 별) 봉사자 모집

이주배경 자녀를 위한 청소년성장 프로그램
2024년 2월부터 매주(토) 10시~16시
내용: 학업 이외의 청소년 성장활동
(해외 봉사, 야외 체험, 악기, 댄스 등)
조건: 20세 이상 55세 미만의 관심자
문의: 031-948-8105~6 파주엑소더스 (금, 토 휴무)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 1월 개강, 6주 과정

이미지를 이용한 기도 방법
일시: 매주(수) 14시~16시, 배영길 신부
수도사들의 화가 수르바란의 미술로 살펴보는
가톨릭 영성과 신심
일시: 매주(목) 14시~16시, 김현직 신부
요한 신부와 함께 읽는 요한복음
일시: 매주(금) 10시~12시, 김민 신부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 방어기제와 감정
일시: 매주(금) 14시~16시
각 6주/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노틀담 첫영성체 교재 연수

일시: 1/27(토) 09:30
장소: 의정부교구청 지하1층 대회의실
문의: 010-6300-6318 노틀담 교리교재 연구소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시스띠나 음악원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날짜: 1/8부터 매주(월) [10주]
문의: 02-338-3793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가톨릭교리신학원 2024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접수: 1/16(화)까지, 자세한 내용 ci.catholic.ac.kr
교리학과 - 주간, 주5일 / 종교학과 - 야간, 주4일
2년 과정 -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 1년 과정, 주3일 (신청 자격 확인)
문의: 02-747-8501 가톨릭교리신학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4 신입생 정시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취업률 73.7% 충북권 1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간호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원서접수: 1/3(수)~6(토)
문의: 043-270-0100, 0119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따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4 전기(2차)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접수: 12/26(화)~1/7(주일)
면접: 1/16(화) 16시 (예정)
문의: 02-2164-4176, 4787, 4173
<https://ged.catholic.ac.kr>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젊은이 땅끝 기도모임

대상: 해외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2024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 여 평신도
자격: 고교졸업(예정)자, 수도자, 만학도로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접수: 1/3(수)~6(토) 인터넷접수
문의: 02-740-9704, 9705
<https://songsin.catholic.ac.kr>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채용

업무: 청소년활동 지도(활동운영팀)
접수: 1/12(금)까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조

원당 성당 관리직원 모집

업무: 성당 제반시설 관리, 미화, 방호
대상: 65세 미만 남성,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자격증 사본(소방 2급)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전기(2차) 신입생 모집

모집: 제1과정(예비과정), 제2과정(석사과정)
접수: 1/26(금) 17시까지
전형: 1/29(목) 14시
발표: 2/15(목) 14시 이후
문의: 02-2164-6521, cukgscl@catholic.ac.kr

2024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접수: 2/16(금)까지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 - 2월 학기

내용: 성모님에 관한 체계적 공부와 33일 기도
<대면반> 2/6~7/28, 매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호 / 회비: 16만원(6개월)
<중반> 2/8~7/28, 매주(목) 20시~22시
문의: 010-2724-4819 마리아 학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or.kr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2/20(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5만원)
3/14(목) 프랑스 성모성지 및 수도원 (13일 560만원)
3/15(금)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50만원 KE)
4/10(수)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13일 540만원)
5/15(수)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3일 56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26(금)~2/6(화) 이탈리아 (525만원)
2/16(금)~27(화) 튀르키예, 그리스 (440만원)
3/1(금)~11(월) 스페인 남부, 파티마 (500만원)
3/7(목)~17(주일) 서부지중해 크루즈 (539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 야간진료 (화 18시~20:30)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라파엘 해외성지순례

2/19(월) 다낭 성지순례 (149만원)
3/18(월) 알프스와 중세수도원 (519만원)
4/5(금) 프랑스 성모성지순례 (529만원)
4/22(월) 산티아고 순례길과 포르투갈 (449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운영 양로원 기금
가격: 된장(1kg) 2만원,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 가능)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분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눈꽃 산행: 1/12(금)~14(주일)
1/19(금)~21(주일), 1/27(토)~29(월)
2/3(토)~5(월), 2/14(수)~16(금)
2/23(금)~25(주일), 2/27(화)~29(목)
접수: 064-796-4182, 02-773-1455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19(월) 체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11일)
4/1(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18km (12일)
4/2(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4/17(수) 이탈리아 완전 일주 (11일)
5/20(월) 튀르키예(터키) 그리스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 세부 일정은 www.catholictravel.co.kr 참조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4년 하반기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DIocese of Uijeongbu

레크

2023 어린이 대림성탄 레크



기쁨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촛불을 켜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들의 기도

어린이 성가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
친구들의 기도문으로 제작한 노래

공연

서울가톨릭연극협회 음악극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일시: 12/28(목) 19시 | 29(금) 15시, 19시 | 30(토) 15시, 19시 [총5회]
장소: 명동성당 내 교스트홀
문의: 02-3789-2586 ※ 전석 초대, 티켓 예약 필수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느냐? ... 그게 나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를
연극화한 공연.
주인공 마르틴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하느님을
만나 희망을 다시 찾고 살아가는
여정이 담겨 있다.

성탄 구유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모든 성당에 구유가 만들어지고, 신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럼 구유는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올해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1223년 이탈리아 그레치오(Greccio)에서 처음 구유를 만들고 구유 예식을 거행한 지 800년 되는 해입니다.

1223년 11월 말, 프란치스코 성인은 호노리오 3세 교황에게 자신의 규칙서(Regola)를 추인받고 로마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성인은 그레치오라는 마을에서 어느 한 동굴을 보고 문득 베들레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말씀이신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내려오심, 곧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이 되신 육화(肉化, Incarnatio)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육화의 신비는 프란치스코 영성의 토대였습니다. 성인은 주님 성탄 15일 전, 그 고장에 살던 요한이란 사람에게 구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필요한 것 하나 갖추지 못한 그 갓난아기가 겪은 불편함을 최대한 생생하게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구유에 누워 있었는지, 그리고 황소와 나귀 옆에서 그 갓난아기가 어떻게 건초더미 위에 누워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요한의 도움으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본뜬 소박한 구유가 만들어졌습니다. 성탄절이 되자, 여러 지역에서 형제 수사들이 모여왔고, 주민들은 밀초와 햇불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초더미가 가득한 여물통이 준비되고, 황소와 나귀도 끌려왔습니다. 많은 불빛이 밝혀지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흐르는 밤, 사제는 구유 앞에서 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서 「놀라운 표징」(Admirabile Signum)을 발표하며 성탄 구유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였습니다: “성탄 구유는 그 기원인 프란치스코 성인 때부터 특별한 방식으로, 성자께서 강생 하심으로써 몸소 택하신 가난을 느끼고 만져 보도록 우리를 초대해 왔습니다. 이는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분께서 나아가신 겸손과 가난과 내어준의 길을 따르라는 호소를 함축합니다. 가장 곤궁한 형제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풀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3항).

우리는 구유에 누인 나약하고 가난한 아기에게서 겸손과 가난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소외되고 잊힌 채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며 구유 예물을 봉헌하고, 이를 모아 그들을 돕습니다. 구유에 낮은 이의 모습으로 누워 계신 예수님을 관상하며 우리도 겸손과 가난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



행주성당



성모몽소승천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031-974-1728	사 무 실
031-972-8537	팩 스
sd.uca.or.kr/hjsd1909	홈 페이지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토 요 일	17:00 토요일저녁주일미사
주 일	09:00
	11:00 교중미사
평 일	11:00 월,화,수,목,금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後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 축 ※

영 명

홍유선(임마누엘) 신부님
영명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25일(노엘라): 주유미

26일(스테파노): 박선우, 이종혁

본당공지

■ 성탄 판공 성사

성탄 판공 성사는 성탄 대축일 전까지 매 미사 전, 후에 보시고 성사표는 고해실 바구니에 넣으시거나 본당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례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전대사 미사)

12월 31일(일)		1월 1일(월)
주일 미사	오전 9시, 11시	오전 9시, 11시
1월 1일 저녁 미사	오후 5시	

※ 12월 31일 주일 전날인 30일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는 오후 5시에 봉헌됩니다.

■ 교중 미사 예물 봉헌

12월 24일	김순곤(라자로), 이경예(마르타)
12월 25일	배성은(소사아가다), 구미경(리베라따)
12월 31일	윤병수(그레고리오), 석마리아(마리아)

우리들의 정성 (12월11일 ~ 12월17일)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8건	1,880,000원
주 일 헌 금		858,000원
자선 주일 2차 헌금		607,000원

■ 감사헌금

이동준	100,000원	김태련	500,000원
최정윤	10,000원	유정규	10,000원
윤정희	5,000원	차은희	20,000원

- 복음 말씀 -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